

고운 자락으로 피어난 전통의 향기

옷깃에 새겨진 바람



변지유 '천연염색 패션쇼'

이영희 작 '바람의 옷'

세계를 감동시킨 '이영희 한복'과 지역 대표 디자이너 변지유의 패션을 한자리에서 감상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해 오는 9월 1일~10월 30일 상록전시관에서 디자이너 이영희와 변지유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옷깃에 새겨진 바람'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이영희씨는 궁중 한복과 '바람의 옷'을 비롯해 그녀가 디자인하고 조르즈 아르마니, 프라다, 마이클 잭슨, 힐러리 등이 입었던 한복을 선보인다.

다' 행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또 사진작가 김중만이 카메라 앵글에 담은 패션쇼 현장의 사진과 다양한 영상도 곁들였다.

이씨는 "한복은 세계 최고의 옷이며, 예술품이다"면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립미술관은 같은 기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변지유씨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패션을 전

이영희·변지유,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념전
9월 1일~10월 30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의상·영상·사진 등 전시... 31일 패션쇼 진행

이씨는 우리 옷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프랑스 파리 프레타포르테까지 진출했고, 뉴욕에서 한복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복은 흔히 저고리와 치마를 함께 입는데, 이영희는 과감하게 저고리를 없애고 치마만으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연출한 '바람의 옷'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그녀의 한복 12벌이 영구 소장 되는 등 세계인의 눈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지난 8월 경북 울릉도 통구미 해안에서 열었던 '바람의 옷, 독도를 품

공한 변씨는 서울과 중국 등지에서 수차례 패션쇼를 열었고, 파리 프레타포르테 등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독창적인 여성미와 화려한 로망티시즘을 결합시킨 그녀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천연 염색으로 얻은 자연의 색과 현대 의상의 화려한 디자인이 빚어낸 레스는 의상 디자인의 묘미를 느끼게 해준다.

한편, 31일 오후 3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영희와 변지유씨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은 10여명의 모델들의 워킹과 작품설명이 더해진다. 문의 062-613-539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범능스님



정태춘·박은옥 부부

희망을 노래합니다

소아암 환자 돕기 자선음악회 내달 2일 화순 만연사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가 열린다. 9월 2일 오후 7시 화순 만연사 잔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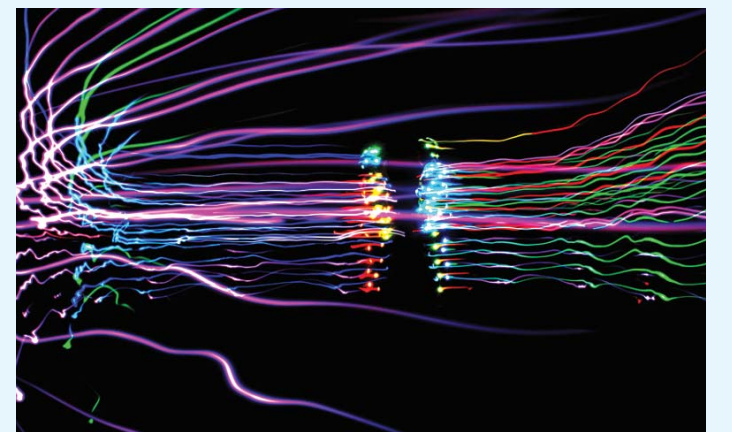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산사음악회에서는 노래 부르는 스님으로 알려진 범능 스님을 비롯해 만연사 비로자나 합창단(단장 유리광), 박은옥, 우순실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한다.

또 이왕재씨 등으로 구성된 풍물놀이팀이 풍물판굿을 펼치며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사랑하는 이에게' 등의 곡을 부른다.

음악회를 주관한 '연꽃세상'의 자공 스님은 "지금도 병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투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작은 정서라도 심시일반 모아 환우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운주사와 불지불교문화원, 광주전남전법당 등이 후원하며 수익금 전체를 화순 전남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들에게 기부한다. 티켓 2만원. 문의 061-374-211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과 나전칠기의 절묘한 조화

진시영 개인전, 내달 2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현대의 빛과 나전칠기가 만났다. 영상 매체 작업을 통해 독특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진시영씨가 오는 9월 2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진씨는 'FLOW'를 주제로 LED 조명을 이용한 영상 설치, 사진, 회화 등을 선보인다. 모니터 프레임을 나전칠기로 꾸며 화면 속 인공의 빛과 화면 밖 자연의 빛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또 무용수의 몸에 LED 특수

상을 입혀 빛의 흔적을 담아내는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미적 실험이 돋보인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 프랫 대학원에서 영상을 전공한 진씨는 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 작가로 참여했다. 또 하정웅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조선대 미술대 화장을 지낸 고(故) 진양호 교수의 아들이다. 문의 062-223-66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뮤지컬로 만나는 '내마음의 풍금'

내달 3일 문예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

전도연·이병헌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내마음의 풍금'이 공연된다. 9월 3일 오후 3시~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광주문예회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공연은 특히 여타 뮤지컬보다 티켓 가격을 저렴하게 책

정, 누구나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내마음의 풍금'은 1960년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23살 총각선생님 강동수에 대한 16살 늦깎이 초등생 홍연의 첫사랑을 가슴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교실에 울려 퍼지는 풍금소

리, 슬래잡기, 고무줄 놀이 등 당시의 추억을 일깨우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등장하며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들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지난 2008년 초연된 '내마음의 풍금'은 그해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극본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10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 총각 선생님을 맡기도했던 오만석이 연출로 참여했으며 가수 팀을 비롯, 김승태·정운선·최주리 등

뮤지컬 전문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문의 062-613-8353. /김미연기자 mekim@

신토불이 6년근
홍삼의 놀랍고 새로운 대발견 **평화발효홍삼**

촉석맛이 선물세트 특별세일 | 단체 주문환영

▶천지용 산수유 30포 35,000원	▶천지용 홍삼진액 골드 30포 45,000원	▶천지용 홍삼진액 골드 30포 60,000원	▶평화 홍삼 진골드 120g 5봉 240,000원
----------------------	--------------------------	--------------------------	-----------------------------

일반 홍삼과 발효 홍삼은 100% 다르다.
일반 홍삼은 콩이고 발효 홍삼은 된장이다.

평화 발효홍삼이란? 평화발효홍삼은 인류의 명약이라고 알려진 고려홍삼을 개재식 가마에서 특수한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파평(행취기) 처리하여 완성한 명품으로 일반 홍삼 제품보다 유효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증량되었고 종전 홍삼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30%인 반면 저화기 기술 개발한 평화발효홍삼은 체내에 100%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감기가 자주 오고 오래가는 분
- 설사와 변비가 잦은 분(장내 미생물 부족)
-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한 분
- 면역력이 약하신 분
-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 피부가 거칠고 부스럼이 잘 나는 분

평화발효홍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당뇨원화 | 신경계 장애 | 피부탄력 노화방지 | 각종 피부질환 개선
세포부활 작용 | 비만체질 개선 | 간기능 개선 | 혈압강하 작용
소화작용 | 항 콜레스테롤 작용 | 항 게양작용항암 작용 | 해독작용 및 증금속배출

무료 상담전화 062-262-5375
(무로출장 상담가능) 010-6770-4488 · 010-6773-1283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자Set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 부산 차생원 051-7007-8
 T. 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